

ECHO^{#07}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EC HO

val. 7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이승민 Lee seung min 조은진 Jo eun jin

부편집위원장

Editor - 윤유미 Yun yu mi
Design - 권재승 Kwon jae seung

편집위원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나중일 Na jung il
Editor - 나예진 Na ye jin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우혜정 Woo hye jung

VOL 7 CONTENTS :

E

05 누룽지필름

16학번 영상쟁이들의 이야기

08 콜렉터들

모으다보니 이까지!

C

12 세상에서 가장 애매한사람

자신감 있는 애매함

13 Jun Summer 나의 추억 여름 이야기

특별했던 4번째 내일로

17 여름밤의 고민

여름밤, 당신의 한숨 내가 들어줄게요.

18 4학년의 여름방학

마지막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앞두고

H

19 여름을 가장 뜨겁게 보내는 사람

김동윤 교수님 인터뷰

23 졸.동.백이 된 이유

졸업생 윤명은 인터뷰

O

26 듣기만해도 놀러가고 싶은 노래 추천

Do you hear what I hear

28 우울할 때 읽는 시

32 뜨거운 여름 잠시나마 당신을 식혀 줄 단편영화

34 I LOVE B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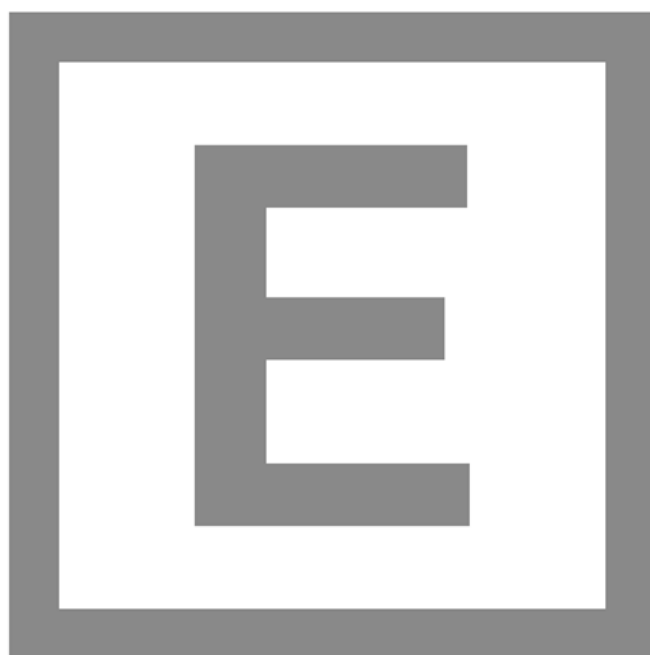
맥덕이 추천하는 세계맥주 한정서

-

37 Hangover

애주가, Echo 편집장들의 술자리 그리고 다음날





Engaging

누룽지 필름

누룽지 필름,
속까지 굵어보자!

2016년 가을, 서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친구들이
'72초 드라마와 같은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한마디에서 출발해 지금은 '가죽 같은 가족'이란
웹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누룽지는 9명의 16학번
친구들이 모여 만든
영상제작팀이다.





권예훈

누룽지 대표 배우. 학술제의 주인공을 발판삼아 이번에는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 업그레이드된 연기력을 선보이는 연기 유망주.



김민지

누룽지 대표 아티스트. 모든 소품과 색깔은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다. 최고의 센스쟁이.



김설이

누룽지 시나리오 팀장 및 엄마. 설 팀장을 지나지 않고는 시나리오를 받을 수 없고, 촬영장에서 밥도 먹을 수 없다. 누룽지 최고 잔소리꾼.



노현지

누룽지 시나리오의 큰 틀을 맡아주는 시놉시스 대장. 왜소한 몸짓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당돌한 소녀.



성다희

누룽지 필름의 바지사장 및 촬영 감독. 콘텐츠 제작의 총괄과 책임을 맡고 있지만, 팀원들이 두 번 손가게 만드는 이름만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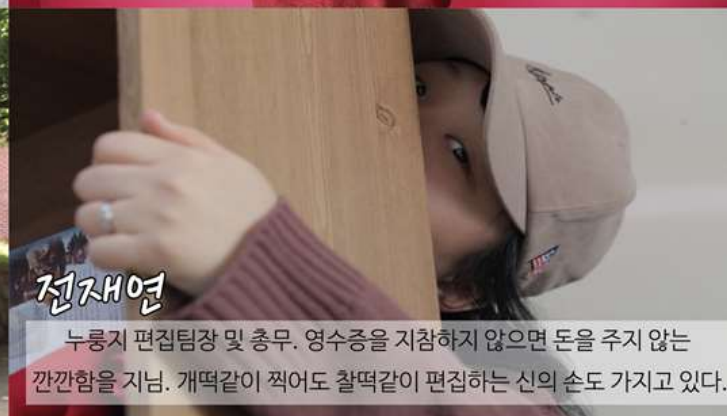
전수빈

누룽지 컨티 팀장이자 분위기 메이커. 통통 튀는 매력으로 촬영장의 분위기를 리드하는 최고의 스크립터.



전시현

누룽지의 묵묵한 홍보팀장 및 기자재 담당. 다른 스태프들의 등쌀에도 제 갈 길 가는 당당한 막내.



전재연

누룽지 편집팀장 및 총무.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 간간함을 지님. 개떡같이 찍어도 찰떡같이 편집하는 신의 손도 가지고 있다.



조현덕

누룽지의 아재로 최고령자 및 배우. 아낌없는 조언으로 때로는 화합을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는 아저씨.



누룽지 필름

누룽지필름의첫데뷔작 <가족같은가족>

'가족 같은 가족'은 누룽지 필름의 첫 웹 드라마로 삼남매를 소재로 10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코믹한 스토리와 그 안에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다.

처음 만들어 보는 만큼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배우들의 일정과 시나리오 의견 충돌, 학과 생활과 연극, 랩실, 공모전 등 개개인이 하는 일들이 많아서 어쩔 때는 촬영장에 배우를 제외하고 스텝이 3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학기 중에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도 하고자 했던 그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재정비해 나갔다.



누룽지를 하면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포토샵 등의 기술을 익히는 것 보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더 의미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서툴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했고, 한때 너무 고집을 부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은 이성적이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 수 있게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누룽지는 길이 막히면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말을 서로에게 할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자세를 배우고 있다.

6월을 목표로 달려왔던 누룽지는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6학년 영상쟁이들의 첫 도전인 '가족 같은 가족'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가족들이 생각하는<나에게누룽지란?>

김민지 : **피플**이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김설이 : **뜨뜻미지근함**이다. 나에게 음식이 뜨뜻미지근 할 때 가장 먹기 좋은 것처럼 나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노현지 : **첫걸음**이다. 내가 쓴 글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도전이 누룽지이기 때문이다.

성다희 : **등산**이다. 올라가는 동안은 힘들어 후회하고 내려가고 싶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그 힘들어 다 잊히듯, 완성된 영상들이 많아질 때마다 역시 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수빈 : **선물**이다. 누룽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나에게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이다. 그리고 누룽지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나를 느끼면서 큰 선물이라 생각한다.

전시현 : **달콤한 사탕**이다. 지쳐있을 때 누룽지 친구가 사탕을 준 적이 있다. 그 사탕의 달콤함이 입속에 돌면서 기운이 났었다. 그 기분은 누룽지에서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현덕 : **사다리**다. 미래를 향한 발돋움이기 때문이다.

전재연 : **고진감래**다. 매화 만드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지만 한 화씩 올 때마다 그 즐거움과 함으로 다음 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앞으로의<누룽지필름목표>

처음 시작했던 '가족 같은 가족'이라는 웹 드라마. 쉽다 생각하였기에 더욱 쉽지는 않은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만큼 다른 콘텐츠에도 발걸음을 떼어보려고 한다.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누룽지 가족들, 앞으로도 파이팅하자!



무언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5월부터 미친 듯 영화를 보러 다닌 사람, 자칭 '시네필'이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이다.

영화를 보다 보니 그 영화에 관련된 굿즈들이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한정판이 많아 놓칠새라 가격도 안 보고 주문.

통장잔고의 후환이 두려워 김밥꼬리로 며칠을 나던 시절... 사실 아직도 그 시절은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하늘서 힘들게 따온 굿즈는

날이 갈수록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상자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그 상자를 열어 본다



귀여운거 못알아!!

_조은진

노오란궁둥이를 싹둑가리며 귀차니즘을 선보이는 이 노른자는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에서 태어났다.

사실 말하자면 나는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푹 빠져버렸다. 샛노란 색에 꿈틀거리는 매혹적인 엉덩이, 어딘가 나쁜 표정에 씹덕터지는 목소리까지

정말 반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귀엽고 작은 아기자기한 물품들을 하나둘씩 모으는 버릇이 있었다.

또, 한번 산 건 절대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한테 잔소리 엄청 들었지만) 쌓여있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항상 “귀찮아~”를 입에 달고 사는 구데타마에 빠진 것도 왜인지 나와 꽤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더 끌렸을지도 모른다.

처음 이 노른자를 알고 난 이후로 내 눈에 노란 궁둥이가 보일 때마다 미친 듯이 사다 모았다. 연신 “옥귀여워”를 외치며 말이다.

우리나라에 정식 라이선스가 들어온 이후로 더 많은 구데타마 물품들이 생겼다. 지금도 많이 사서 모았지만, 자꾸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서 너무 행복하다.

내 지갑은 훌쩍하지만 마음만은 풍족한.. 어미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어떤 짓(?)까지 했는가 하면, 구데타마를 위해

오사카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오사카 햅파이브라는 곳에 가면 라운지층에 구데타마 카페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온사방팔방이 노란 궁둥이로 도배가 되어있고 심지어 디저트의 모양새까지 전부 구데타마 모양을 띄고 있다고 했다.

참새가 어찌 방앗간을 지나 칠 수가 있는가. 아니 사실 그보다 더 심한 열망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꼭 그곳에 가리라 다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야 할 수 있었다.

단연코 말하건데 그곳은 천국이었다.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좋았다.

구데타마를 향한 나의 뜨거운 열정은 아마 당분간은 식지 않을 것 같다. 마성의 노란 궁둥이가 나를 끊임없이 부르기 때문이다. “나안데려갈거야? ㅇ_ㅇ?”

저곳따 하즈다 늘즐 의 윤유미



1. 블루레이

어지간한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저리 가라 한다는 블루레이 프리오더. <올드보이>를 좋아하는 나는 4시에 열린 프리오더에 가까스로 성공해 얻은 값진 넘버링 한정판 블루레이이다. 실제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5분도 안 돼서 품절이 뜨 구매하지 못한 몇몇은 아직도 눈에서 파눈물이 흐른다고. 함정은 아직 블루레이 플레이어 가 없어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얼마 전엔 <아가씨> 블루레이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갑자기 뜬 DVD 소식에 무의식적으로 산다. 패키지가 다르다는 말에 혹해서 산 DVD는 너무 예뻐다.

4. 독립출판물

사실 요 몇 년 전만 해도 영화에 한해 굿즈 개념은 자극해도 적었다. 요즘은 굿즈를 위해 영화를 보기도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매년 열리는 독립출판물에도 영화 관련 굿즈들은 광장히 많이 있었다. 각종 엽서는 물론이거니와, 포스터 디자인을 한 곳에 모아놓은 작은 미니북, 쓸 곳도 없는데 너무 예뻐서 홀리듯 사는 마스킹 테이프 등.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영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담론을 제시하는 영화잡지 <아노>, 한 호에 한 영화만을 다루는 영화 잡지 <프리즘오브>도 있다. 사진은 선물받은 프리즘오브 2호 <이타널선사인>이다.

2. 각종 포스터, 엽서들

굿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각종 포스터와, 메인이나 아트 포스터 이미지가 압혀진 엽서들이다. 특히 영화 포스터는 그 영화를 보게 해주는 기폭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믿는 나는, 디자인이 감각적인 영화 포스터와 엽서들을 종종 챙기는 편이다. <카페 소사이어티>, <최악의 하루>, <비거 스피드>의 프레시킷 엽서, <라라랜드>, <파도가 지나간 자리>, <립반윙클의 신부>의 A3 포스터까지. 모으다보면 쓸쓸한 재미와 처치 곤란의 상황이 합쳐져 헤타(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 왜 민무늬 토기에 빗금을 쳐 빗살무늬 토기를 썼겠는가. 지금처럼 그 시대도 예쁜 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5. 영화제 굿즈들

세계 3대 영화제가 칸, 베를린, 베니스라면 한국 3대 영화제는 전주, 부산판타스틱, 부산을 꼽는다. 영화제 기간에는 많은 초청작과 경쟁작이 상영되는데, 해당 영화제 이후 개봉할 많은 영화의 엽서와 포스터가 배포된다. 특히 이름 좀 날렸다는 감독들의 영화 포스터와 엽서들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빠진다. 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자비에 돌란 감독의 <단지 세상의 끝>이 그 예였다. 그래서 영화제 기간에는 배포되는 장소를 따라 어슬렁거리는 시네필 좀비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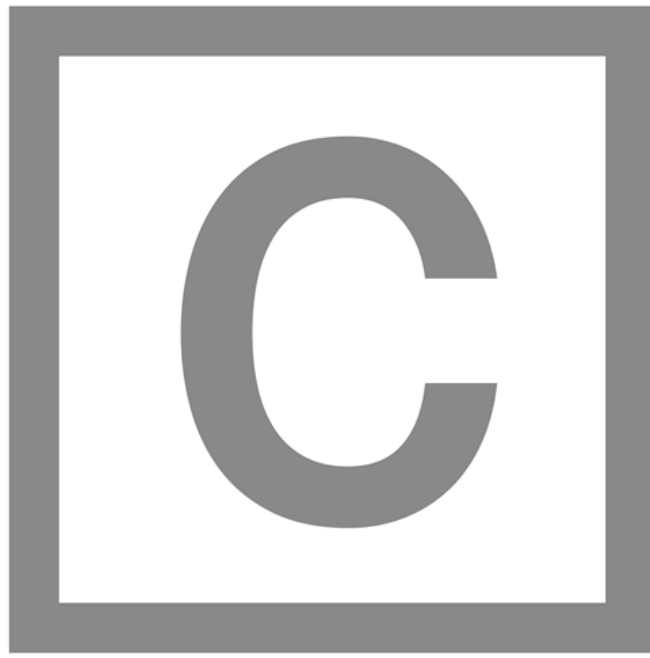
3. 핀셋지, 에코백

굿즈는 정말 여러 형태로 나온다. 머그컵, 에코백, 달력, 파우치... 나는 <최악의 하루>, <라라랜드>, <단지 세상의 끝> 에코백을 돌려가며 맨다. 요즘은 바빠서 못하지만 기분이 별로면 짐을 옮기는 고생을 하면서도 <최악의 하루> 에코백을 맨 적이 있다. 게다가 요즘은 영화를 보고 난 후 감명 깊었던 팬들이 직접 굿즈를 제작하기도 한다. 그 예로 <라라랜드>의 핀셋지를 들 수 있겠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직접 도안을 따서 업체에 맡기고, 구매수량을 조사한 뒤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사놓고 <단지 세상의 끝> 에코백에 달고 다니는 <라라랜드> 배지를 보게 되면, 그만큼 보람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끔 보며 손으로 쓰다듬어보는 건 비밀이다.

6. 황당 굿즈들

달아놓고 모으다 보면 거저꼴을 못 면하는 것처럼, 모으다 보니 이런 것도 모았나 싶은 굿즈들도 몇 개씩 생긴다. 그 중 <카페 소사이어티>에서 받은 온 더 락스 잔과 스트레이트 샷잔이다. 영화는 보고 싶고, 굿즈도 주니까 받아야겠고, 목칠순 없으니 가끔 소화가 안 될 때 저 잔에다 매실청을 물에다 타 먹곤 한다. 마시면서도 어이가 없지만, 아랑 마시는 거 정말 술인 척 먹는다. 해리와 조니 워커를 이 잔에다 마시는 그날까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영화를 '미치도록'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의 굿즈 컬렉션은 내가 영화에 대한 흥미를 잃어방한 건에 차박이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아마 멈출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김밥 꼬가리를 삼키며 또 하나의 굿즈를 따기 위해 하늘에 오른다. 올해는 당신도 어느 하나에 미쳐보는 한해가 되길!



Communicating



세상에서 가장 애매한 사람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1.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기도 애매하네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웃음) 경북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조애매입니다. 세상에 이도 저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청춘의 고민을 한껏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음 아마 저는 저 일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우리네 청년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또래 친구들과 얘기 나눠보면 비슷한 고민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 자신을 애매한 사람이라 칭하는 이유는?

음,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오다 보니,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안에 꾸역꾸역 맞춰가는 것도 있고요. 무엇 하나 쉽게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귀가 얇아서 남들의 의견 반영을 너무도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혼자서는 뭘 먹을지 결정도 잘 못하는 편입니다. 또 웃을 잘 입고 싶은 열망은 누구보다 크지만, 막상 어떤 옷을 사도 다 애매해서 결국 몇 번 못 입고 버린다던지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 단점투성이네요. (웃음)

3. 대표적인 에피소드는 무엇?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의 애매함을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잘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에피소드도 저 혼자 있을 때의 이야기가 많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사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옷 가게에 들어갔다가, 주인 언니의 말에 휘둘러 생각지도 못했던 구두를 사서 나온단지, 친구들이랑 프로듀스 101을 보며 내 '고정픽'을 한 번에 얘기하지 못할 때라든지, (웃음) 조 모임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좋다고 미친 듯이 찬양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좋다며 환호한다던지 너무 많아서 에피소드를 다 말하지도 못 할 거 같아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이지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정말 혼란의 도가니탕이 아닐 수 없답니다.

이리저리 휘돌리고 나서 잠이 들기 전 후회하는 하루를 무한 반복 하곤 합니다. (한숨)

4. 애매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단점으로 뚫뚫 뭉쳐진 사람 같지만, 사실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나는 왜 이도 저도 못 하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많이 미워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가치관이 많이 바뀌다 보니 엄청나게 애매해서 못나 보이는 내 모습도 결국 '나'였어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암묵적인 압박 때문에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꿨더니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이도 저도 아니면 어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걸!'라고 말이지요. 애매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까요. 한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곰곰이, 유심히 살펴봤던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큰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자신감 있는 애매함을 가지고 있답니다.

5. 세상에 존재하는 애매한 사람들에게 한 마디

헤르만 헤세의 책 '데미안'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애매한 사람들이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틀을 깬다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고 복잡한 세상에서 그냥 나의 삶을 살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멋진 사람들이예요. 이도 저도 아니라고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생각으로 열심히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방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존재는 늘 아프지만 빛날 거예요.

특	네
별	번
한	째
	내
여	일
름	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내 버킷리스트는 대한민국 전국을 다 가보는 것이다.

다녀온 후에는 책상 위에 있는 지도에 다녀온 지역을 색칠한다.

20살부터 여름,겨울 총 4번의 내일로, 지역 여행을

다녀온 후 나의 지도는 다 채워져 가고 있다.

여름 여행 중 내가 가장 다사다난했던 22살의 여름 내일로를 추억하며 글을 써본다.

1 일 차 경 주



16년 7월 20일 전국 폭염의 절정을 찍었던 날. 나는 백팩을 메고 중학교 친구 3명과 함께 경주행 기차를 탔다. 내일로는 총 7일로 최소한의 짐을 꾸러 기차로 이동해야 된다. 38도의 온도, 불쾌지수 80%이었지만, 내일로 첫 코스는 즐겁게 여행하고 싶었다. 남는 것은 사진이다. 우리는 인생샷을 찍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추억의 달동네부터 시작해서 보문 콜로세움, 장난감박물관 등 뜨거운 햇살이 조명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저녁은 인압지에 갔다. 수학여행에서 본 낮의 인압지와 밤의 인압지는 달랐다. 무더운 여름의 밤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밝게 빛나는 인압지와 첨성대는 정말 아름다웠다. 폭연인사이라면 가보길. 무조건 추천. 물론 나는 여자친구들과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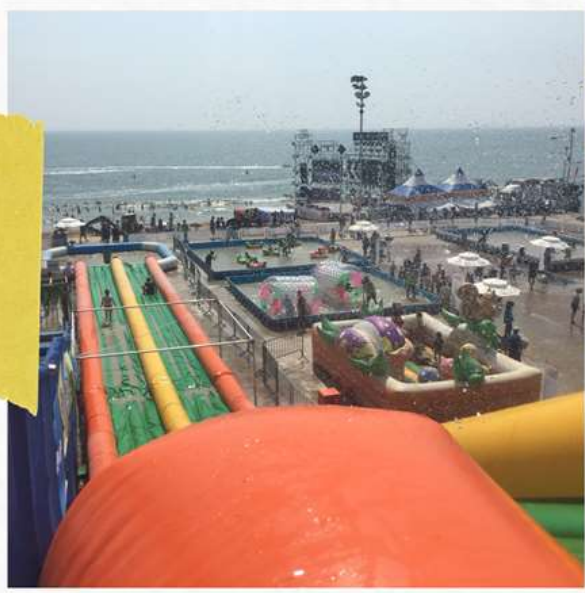


2 일 차 제 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제천. 뜨거운 여름 우리는 액티비티 스포츠가 하고 싶었다. 청풍호에 가면 번지점프와 같은 놀이의 기구가 있는데, 3명이 함께 번지점프처럼 뛰는 것이다. 놀이기구를 갈타는 나는 기대됐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니 무서웠다. 끈을 당기면 떨어졌는데, 끈을 당기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탔던 놀이기구는 다 장난이라는 것을 느꼈다. 소리를 너무 지른 탓일까 타고 내려오니 얼굴에 땀줄이 타져있었다. 살다가 얼굴에 땀줄이 터지다니! 여기서 끝이 아니다. 땀줄 터진 얼굴로 집라인을 탔다. 친구들이 무서워해서 첫 번째로 탔는데, 신입이었던 안전요원은 타는 자세를 말해주지 않았다.

누워서 타야 하는 것을 앉아서 탄 나는 중간에 멈추게 되었고, 호수 위에서 집라인에 매달려있는 공포감은 눈물을 뚝뚝 흘리게 했다. 친구들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앞쪽에 있는 다른 안전요원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자세를 다르게 하라는데 공포감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안전요원은 줄에 거꾸로 매달려 나를 데리러 왔고 20분 동안 나는 안전요원에게 끌려서 도착하게 되었다. 30분 동안 발 밑에는 호수가 있고 줄에 의존해서 있었는데 정말 모든 생각이다 들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나, 나 없이 남은 여행을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까 등 울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20분 동안 나를 끌고 간 안전요원에게는 군대에서 유격을 한 번 더 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제천은 나에게 정말 액티비티했다.

3	일	차		보	령
---	---	---	--	---	---



보령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바로 머드축제! 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세계인이참가하는축제중하나로꼭한번가고싶었다.사실조개구이가먹고싶어서보령을
코스에 넣은 것은 비밀이다.뜨거운 여름,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하고 싶으면 한 번쯤은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다양한 놀이기구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친구들과즐겁게놀았다.머드 덕분에 좋은피부결과탄피부 그리고하기짐을 얻었다.신나게놀고 조개구이를 먹으러갔다.조개구이를 먹고식중독을 얻었다.

4	일	차		군	산
---	---	---	--	---	---



군산에 오면 꼭 유명한매운짜장면을 먹고 싶었다.
대기 시간이 길어 꼭 일찍 가라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9시 오픈에 맞춰서 갔다. 9시 10분에
도착했지만 가게 안에는 테이블이 가득 차 있었다.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일까? 하고 아침부터
매운 짜장면과 짬뽕을 시켰다. 정말 맛있게 매웠다.
평소에 중화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진짜
맛있었다! 군산에 간다면 꼭 '지란생'을 들리길.
군산은히로쓰가옥이라 불리는건축양식들이많다
.사진을 찍으면일본에서 찍은 느낌이난다.택시를
타고경암동 철길마을을가면서택시기사님이어린
시절을 말씀해주셨는데, 자신이 어릴 때는 기차가
다닌 곳이 지금은 관광지로 바뀐 것이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하셨다.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니
가보길.철길에서 친구, 연인과 손잡고 찍는 포즈는
필수다.

5 일 차 광 주



폭염 속에 돌아다니는 우리가 너무 대견스러워서 광주에서는 쉬어가기로 했다. 마침 광주에서 대표적인 야시장인 대인예술야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다.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젊은 친구들의 청춘이 부럽다며 자신이 광주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다. 요금을 받지 않고 택시를 타고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광주인에게 듣는 광주의 이야기는 어느 책, TV보다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다.광주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고, 저녁에 여행자들끼리 파티가 이루어졌다. 자기소개를 하던 중 청각장애를 가지신 농인분이 있으셨다. 수화를 배운 나는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통역을 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그분은 나에게 "예쁜 마음을 받았다. 너는 예쁜 사람이다. 나와 소통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주셨다. 통역한 뿌듯함보다, 사람에게 받은 따뜻한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을 만큼 감사했다.우리는 새벽까지 각자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들으며 행복한 폭염주의보를 보낼수 있었다.

6 일 차 담 양

죽녹원에서 여행을 마무리 하고 싶었다. 마지막 여행지인 만큼 천천히 걷고 싶었다. 죽녹원은 아름다웠다. 더운 날씨였지만, 대나무 덕분에 햇빛을 가릴 수 있었다. 걷다 보니 담양 출신 뉴미디어 아티스트 이아남의 아트센터가 있었다. 이곳은 예술 작품을 미디어와 결합해 표현한 작품들을 LED 화면에 전시해 놓았다. 죽녹원을 보고 영감을 받은 <신목죽도>는 그림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계속 보게 되었다.나도 죽녹원을 보고 영감을 받았길 바라며 친구들과 여행의마무리를지었다.



마르셀 푸르스트는 말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1년 전에 간 여행이었지만, 1년 뒤 지금 회상하며 글을 쓰는 나는 그때 보다 성장했다고 스스로 느낀다. 나의 뜨거웠던 여름 추억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한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뜨거운 여름 뜨겁게 떠나 보는 것 어떤가?

여름밤, 당신의 한숨 내가 들어줄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 이하이 한숨中

선선한 여름밤, 작은 한숨 내뿜기 어려웠던 하루를 보낸 당신

당신의 말 못했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게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이야기만 들어줄게요

첫번째 고민

슬슬 더워지는 여름밤 밤하늘을 보면 감성이라는 것이 생겼는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고민들을 문득 꺼내 본다. 남들 따라 대학교에 왔는데 어떻게 내 꿈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취업을 생각하자니 1학년은 아직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렇다고 대학원을 가자니 누군가처럼 공부에 많은 뜻과 열정도 없는데 내가 과연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고 3때 그렇게 원하던 이 학과에 왔는데 자꾸 이곳에서 내가 적어지는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난 이 학과에서 성공할까야 하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열정과 자신감 또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흔히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걱정도 되고 가끔은 모든 것에 의욕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

세번째 고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요즘 자주 생각한다. 내 남자친구는 군인이다. 자주 전화하자, 휴가 나오면 너랑만 있을 거야 하는 말에 울컥해 눈물이 났던 것도 잊고 이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서로에게 익숙해져 밤마다 몰래 몰래 했던 전화는 차츰차츰 줄어들었고 매일 손가락에 굳은살 박히며 썼던 편지는 언제 썼는지 싶다.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져가는 그때 남자친구는 휴가를 나왔다. 만나자고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모르는 이름을 말하며 그 친구 만나러 가야 하니까 친구 만나고 다시 연락 준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항상 내가 1순위였던 그 사람 이었는데 매정하게 전화를 끊는 것이 나에게겐 이젠 나와 난 여기까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점점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 사람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두번째 고민

여름밤, 가만히 누워 창문 밖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본다. 별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별 하나를 보면 그 사람과의 추억이 떠오른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고 같이 얼굴 보며 웃고 행복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은 항상 예쁘고 밤하늘의 별처럼 나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항상 빛나고 아름다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함께였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 기분보다 내 기분을 우선으로 해주는 사람이었고,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진 않았는지, 나를 누구보다 걱정 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나 또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먼저였다. 그렇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그 사람의 손을 놓아버린 그날, 나는 그날 이후로 과거에 혼자 살고 있다. 둘이 아닌 혼자. 과거에 혼자 있는 나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네번째 고민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던 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무서워 피했던 나. 그런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다가왔던 한 예쁜 친구가 있었다. 처음에는 또 다시 상처받을까 무서워 그 친구가 한 발짝 다가오면 나는 두 발짝 아니 세 발짝 피했다. 하지만 내가 세 발짝 피하면 그 친구는 다섯 발짝 다가와 말을 걸었고 나는 그런 친구에게 나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줬다. 처음에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5월이 지나가면서 그 친구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생겼다. 나는 그런 친구랑 멀어지는 게 싫어서 더 많이 연락하고 없는 시간도 내어 놓았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기분에 불안했고 또 다시 사람에게 버려질까 무서워 노력했다. 그 친구가 사귀는 새로운 친구에게 밀릴까 불안했다. 그 친구랑 멀어질까 무섭고 조금은 두렵다.



Hosting

All our dreams can come true
if we have the courage to pursue them.

Walt Disney(1901-1966)

내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가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름을 가장 뜨겁게 보내는 사람, 김동윤 교수님을 만나다. 글_김나영, 윤유미

“모든 것의 이면에는 다 인문학이 있어요.
그 인문학의 핵심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1. 여름을 가장 뜨겁게 보내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소감 말씀해주세요.

-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대학은 7월과 8월이면 방학이지만, 행정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은 어떻게 보면 학기의 마무리와 시작이 맞물리는 기간이죠. 제가 기획부처장으로 있으니, 행정을 준비하는 혹은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교직원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맥락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름을 가장 뜨겁게 보내는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좋고 나쁜 개념보다는, 2년 동안 본부 보직을 하면서 학과 일에 이전보다 더 애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것 때문에 항상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미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모든 일정 및 학과 관련 일을 본부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아가서는 본부에서 거시적으로 돌아가는 교육의 생태계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바뀌어나가는 정책의 방향성을 잘 배워서 2년 후에는 전보다 노력하고 더 세련되게 우리 학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여름을 뜨겁게 보내는 건 열정을 쏟는다는 말과 같은데, 현재 가장 열정을 쏟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지금 맡은 기획부처장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학교의 전체 플랜과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설계해 나가는 행정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의 인프라, 환경, 제도, 학과와 단과대학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실제로 이번에 제가 낸 아이디어가 우리 학교의 에이스 사업의 기반으로 채택되었고, 그것이 전국에서 일등을 했어요. 그 에이스

사업의 기본 모토가 저한테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과대학과 학과 시스템이 갖고 있는 맹점을 ‘cluster’ 개념으로 극복하자는 거예요. 다양한 학과들이 모여서 창의 콘텐츠 즉, cluster 라는 새로운 형태의 단과대를 만들면 공통 융·복합 트랙을 만들어서 다양한 전공 분야를 한꺼번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전공 선택 혹은 일반 선택을 통해 자기의 전공을 베이스로 두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분절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교과 이수 과정이라면, 이것은 융·복합이라는 탄탄한 교육과정 안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그 계획안이 기획부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되는 건가요?

- 그렇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면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예술디자인 융합전공과 멀티미디어 기술 융합전공을 하면 졸업장에 적히는 전공이 3개가 되는 거죠. 학위 개수와 졸업장에 적히는 전공이 무엇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 혹은 다수의 전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에이스 사업으로 지원받는 4년이 지나면 우리 학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우등한 교육적 인재들을 뽑아내는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그 목표입니다.

4. 에이스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것이 현재까지 기획부처장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되셨군요.

- 그렇죠. 지금까지의 역사가 학과와 단과대학 중심의 학사구조였다면, 지금부터의 역사는 cluster의 역사가

됩니다. 총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학사구조와

‘Cluster’
 다양한 학과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융 복합 트랙 구축

 다양한 전공 분야를
 한꺼번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소화

 다양하고 우등한
 교육적 인재들을
 뽑아내는 플랫폼

관련한 대구대학교 대전환의 momentum이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을 이 기반으로 해서 가게 된다면 다른 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학사 구조와 기반을 갖고 있는 cluster 특성화된 대학교라 말할 수 있겠죠.

5. 기획부처장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모르겠어요.(웃음)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인사권자인 총장님이 발령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연구년 가 있는 동안에 ‘교수 김동윤’의 역할을 많이 고민했어요. 이제 6년 동안 미뤄뒀던 교육을 하려고 왔는데, 다시 학과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학과장을 하고 끝났다 싶으니까 본부에서 일반 대학원 부원장을 하래요. 그래서 부원장 일을 했는데 6개월 뒤에 기획부처장을 하래요.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발령을 받은 거죠.

이건 제 추측인데요. 우리 학교 대학원의 발전 계획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스토리고 정책적인 비전과 기획이 있다고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기획부처장의 자리가 비어서 제가 기획과 잘 맞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리를 맡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저 제게 주어진 일이 뭔지를 보고 제 소신껏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왜 그걸 하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보통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작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작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큰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던 감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골 전체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집과 나의 역할이라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의 어머니가 청각장애가 있는데,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잘못 소통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열악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저는 그걸 그냥 내가 살아가는 생존 방법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게 전체 공동체 속에서 우리 집과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만들어준 삶의 환경적인 요건이 됐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하죠. 약간 제 느낌엔 지금 와서는 좀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웃음) 큰 그림과 중간 그림과 작은 그림을 잘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나의 특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단점도 있죠, 그 대신에.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걸 저는 잘 이해를 못 해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세상은 엄청나게 편안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주관적인 바람이고

나아가서 핑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핑계라고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내 귀에는 자꾸 핑계로 들리는 거죠. 그게 저 의 달 레 마 입 니 다 . 나는 인문학의 기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 각 합 니 다 .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를

얘기해야만, 자기 삶의 신조와 태도로 삼아야만 그 이후가 있어요. 나의 아들과 딸에게

물려줄 정신적인 자산과 유산이 있다면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6.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조언이 되는 거군요.

-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기적은 다 이루어진다! 제가 22일에는 바쁨에도 불구하고 봉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무현의 정신, 정치인 노무현, 사람 노무현의 가치를 수업시간에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얘기했죠. 이분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부산 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험을 공부했어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무료 변호도 해주고, 부산 지역 사회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무료 변호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정치권에 도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를 할 때, 정치 입문을 도와준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반대하고 민주 투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낙선했습니다.

결국,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과 이상을 펼쳐보고자 정치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왜곡과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대통령의 면모와 탈권위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이 들어선 후 집권 당시보다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탓에 가해진 많은 탄압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향수는 이후 정권의 비정상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했고, 오늘날의 문재인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문학 아니겠는가, 저는 노무현의 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인간 노무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인생에 절절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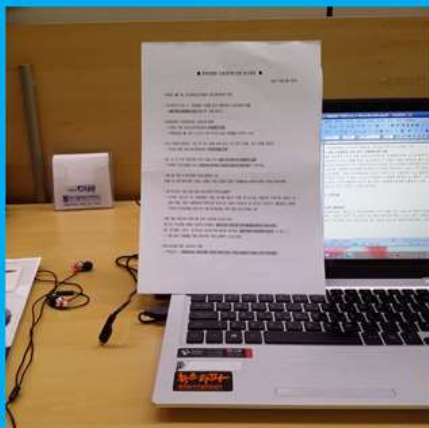
모든 것의 이면에는 다 인문학이 있어요.

• 그 인문학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선 주자로 다시 출마해서 전국엔 노란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론인이 되고나면 무식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잘 모르면 기사를 쓰지 말거나 언론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까지 무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새벽 두시가 조금 남은 시간.

24시 카페 창가에 앉아 큰 숨을 한 번 내뿜는다.

3개월 전 그만둔 ‘평화뉴스’ 스티커를 붙인 노트북을 켜고

한글파일에 어렵사리 문장을 이어간다.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까.

01

졸.동.백(졸업과 동시에 백수)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야기. 졸업. 학사모를 쓰던 날부터 나는 더 이상 ‘학생’도 ‘사회초년생’도 아니었다. 직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모든 국민이 아는 박 모 씨처럼 “무직”이라 답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을 보고 있는 후배들은 자신도 졸업 후 같은 처지가 될까 불안에 떨거나 오히려 나를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나도 비싼 등록금 내가며 4년 고박 학교에 다닌 결과가 ‘백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도 출가분했다. 더는 학교 과제와 시험에 허덕이지 않으니 말이다. 버락치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스트레스 받는 조모임도 없다. 당장 가시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졸업 후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다. 생산적인 일이라곤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채 놀고, 먹고, 자는 진정한 백수 생활을 즐겼다. 휴학 없이 스트레이트 졸업을 한 나에겐 꿀 같은 시간이었다.

02

every day '자발적 백수'라 자위 中

4학년 2학기 취업에 성공했다. 2009년부터 8년 가까이 지망해온 '기자'가 됐다. 명함을 돌리며 "안녕하세요. 평화뉴스 윤명은 기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았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대구경북의 몇 안 되는 정론지에서 일하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에 나가 취재하는 것도, 차가운 길바닥 아무 곳이나 덜컥 앉아 취재하는 것도, 다른 언론사 선배들을 만나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난 거의 날마다 울었고, 잠들기 직전 급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만큼 힘들었다.

그리고 일을 그만뒀다. 단지 힘들어서 퇴사한 것은 아니다. 3개월간 약 55건의 기사 바이라인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더 많은 기사를 쓰고 싶었고 독자에게 더 좋은 기사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난 못난 기자였고 아직 기자로서 준비가 덜 됐던 시기였다. 내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다.

'뭘 모르거나 뭘 못 느끼는 것까지도 기자에겐 죄가 된다.'
 <기자, 그 매력적인 이름을 갖다> 10p

'언론인이 되고 나면 무식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잘 모르면 기사를 쓰지 말거나 언론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까지 무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자, 그 매력적인 이름을 갖다> 28p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잠시나마 움켜쥐고 있던 기회와 행운을 놓았다. 스스로 준비가 됐다고 느낄 때 다시 기사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똑똑하고 멋진 기자가 되리라 다짐한다. 실업률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정규직을 마다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자발적 백수'라 자위하며 덤덤한 척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백수 두 달 차에 접어들자 마지막 월급과 적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모두 썼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음식점 홀 서빙. 자발적 백수라고 땀땀거리기는 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알고 지내던 언론사 선배들이나 취재원을 만나면 쥐구멍에 숨고 싶을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하다.

03

노동법 알면 뭐하나, 수당도 못 받는데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나의 하루 노동 시간이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겨우 30원 높은 6,500원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물론 야간수당조차 주지 않는다. 기자로 일하며 경북대병원 청소노조 민들레분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황재분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해 많은 노동조합 취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썼다.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노동을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기사를 썼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락거리며 노동법을 공부하고 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런데 법을 알고 기사를 쓰면 뭐하나. 정작 노동기사를 썼던 나는 수당 달라고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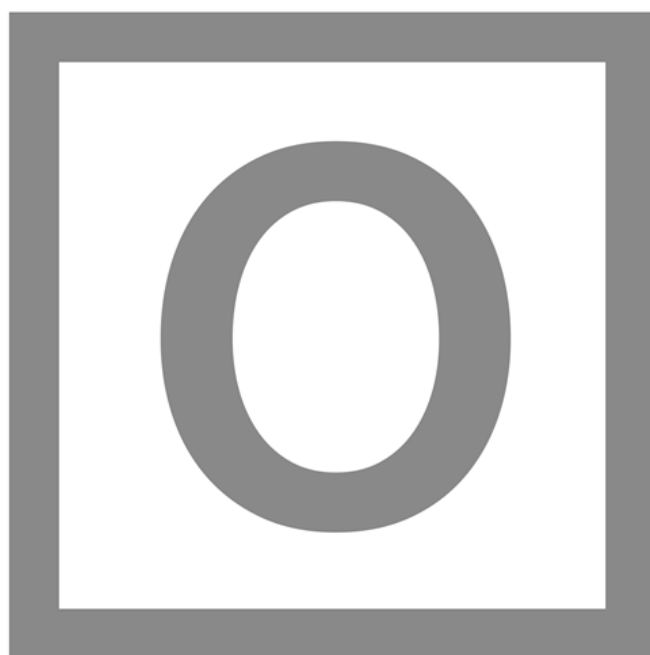
04

새벽의 거리

8시간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 거리를 걷는다. 평소 '새벽공기'라 하면 상쾌하고 가벼운 이슬냄새를 생각했다. 그런데 일이 끝난 시내의 거리는 온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들로 넘쳐나 피톤치드 같은 내용은 커녕 악취가 코를 찌른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익숙해지자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덕분에 '새벽은 가난한 이들의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됐다. 이른 새벽 젊은이들로 가득한 클럽골목에는 맨발의 노숙자가 있었고, 불 꺼진 가게 앞에서 연탄을 피우고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위험하게 잠 든 할머니고 있었고, 70세가 넘어 보이는 허리 굽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모습을 봤다. 기사나 장황한 글 속에서도 봤던 모습이 내 가까이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기사를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덕분에 많은 것을 느끼는 중이다. 아주 잠깐 내가 눈여겨보고 있을 뿐이지만 잠시나마 그들을 느낄 수 있었고 복잡한 생각이 가슴을 두드린다.

늘 '인권을 위한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었다. 기사를 또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힘든 일을 해보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발판 삼아 하루를, 일주일, 한 달을 보내려고 한다. 지금 나는 토익시험과 KBS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평범한 취업준비생이다. 이 글을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없다. 그냥 졸업생인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



Outreaching

DO YOU HEAR

WHAT I HEAR

예전에 '공짜로 전국 여행 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다.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했고, 그 호기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방법 역시도 간단했다. 첫째, 컴퓨터를 켜다. 둘째, 로드뷰를 들어간다. 셋째, 장소를 검색한다. 넷째, 마우스로 이곳저곳을 눌러본다. 얼마나 간단한가! 기술의 발전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누워서 세계여행까지도 갈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말도 안 된다고?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자. 몸은 따라주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프로 여행러'로 만들어주는, 혹은 여행 욕구를 불쑥 생기게 만드는 노래들이다. (참고로 다음의 노래들은 전부 꼬부랑 글자로만 뽀뽀하게 채워져 있는 곡들이지만, 사실 필자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팝송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인 즉슨, 취향도 호트러질 만큼 좋다는 뜻이다.)



Island Island
Bye bye badman

흐릿한 기억이지만 어릴 적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반주만으로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OST가 있었다. 알지 못했던 반전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비밀이 알려지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한층 더했던 그 곡. 다소 뜬금없지만 밴드 'bye bye badman'의 <Island Island>도 마찬가지이다. 목적 없이는 집 밖을 잘 나서지 않고, 타인에게 감정 표현도 게을리 하는 내게 숨겨진 여행에 대한 욕구를 일깨워주는 노래이기 때문. 곡이 시작되기 전 동동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왠지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를 창문을 열고 뽀뽀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영원을 꿈꾸고, 긴 자유를 느끼며, 낯선 밤이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사에 그럴듯한 용기는 덤. 게다가 대학생들이 만든 프로급의 귀여운 뮤직비디오는 안보고는 못 배기리라.



I don't like it,
I love it
Florida

소년시대의 티파니가 방송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듣는 곡으로 꼽았었던 노래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음악 볼륨을 높여가면서 춤추고, 새로움을 찾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 우리가 보통 미국의 파티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부분을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그대로 담아놓았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YOLO'라이프에 딱 맞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She's american

The 1975

경쾌한 리듬과 달리 촌철살인의 가사가 눈에 띈다.
'그녀는 세상과 달기 위해 옛 시절처럼 전화를 거네.
그 순간과 사랑에 빠졌으면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가 잘 안 먹고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그녀는 미국인이야.' 큰 도시 속에서 작은
먼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권태와 고정관념을
이렇게 흥겹게 녹여 내다니, 버스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보듯 별 생각 없이 들었을 때에는 깜짝 속아버렸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사운드가 돋보이는 밴드이니만큼,
덧붙여 <chocolate>라는 곡도 추천한다.



Dancing in the
moonlight

Toploader

그것의 기원 같은 것은 모르지만 예전부터 별 이유 없이
달이나 별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를 주제로 한 곡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프롬'의 <달밤댄싱>이나 <달의
뒤편으로 와요>같은 곡을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 우주가
주는 영롱함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은 아무래도 'Toploader'
의 <Dancing in the moonlight>가 아닐까하는 생각에 추천하게 되었다. 이 곡은 1970년대
밴드 'King harvest'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2000
년에 발매한 곡인데, 리메이크를 하고 지나간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촌스러움이 전혀 묻어있지 않아
놀라움을 준다. 무더운 여름 아래 좋은 사람과 같이 걷고
있는 여름의 어느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



Slide

Calvin ha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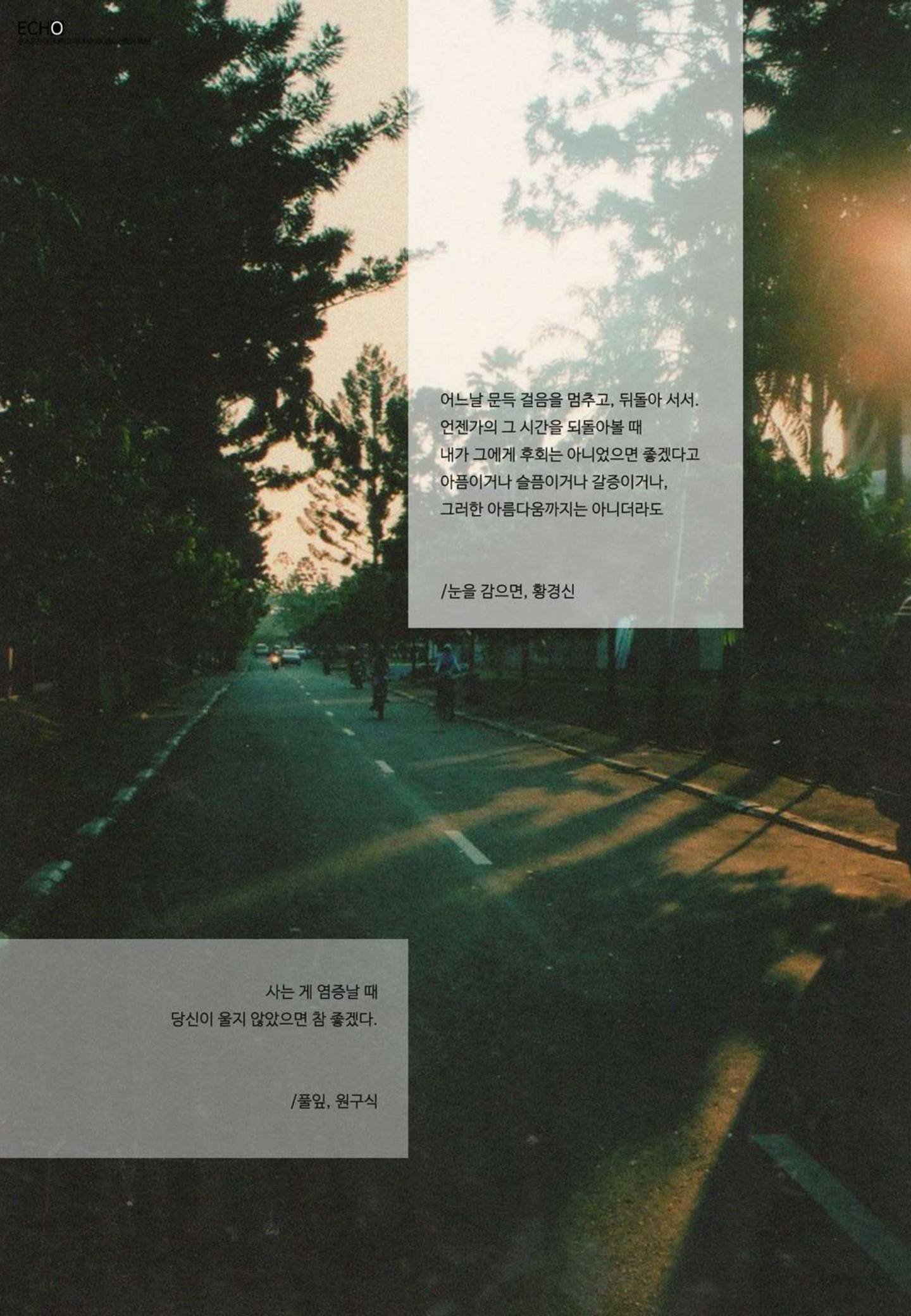
매 길마다 벚꽃이 흐드러져 있던 4월 초에 처음 듣게 된
'Calvin harris'의 <Slide>는 당시 오지도 않은 여름을,
정해지지도 않은 여행계획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웬지
모를 시원함을 주는 전주를 넘어 기계음처럼 들려오는
목소리가 묘한 중독성을 남긴다. '여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띠는 가사이지만 그 대신 여름밤에
끝없는 바다를 눈앞에 두고 모래사장에 벌러덩 누워
듣는 상상을 선물해주었다.

‘누구나 그렇다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본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늘 위로 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아마 모르긴 해도 세상 어떤 사람보다 씩씩하게 살아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외로움, 공허함, 우울함과 같은 아주 차가운 감정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 누군가에 속해 있는 나도 우울이라는 감정에 종종 휘둘릴 때가 있다. 사실 아주 많다.
생각해보면 우울과 마주하는 시간은 늘 혼자다.
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전달하는지 모를 이 감정을 말로서 설명하기도 무척 어렵다.
그리고 무척 힘들다. 그럴 때 나는 시를 읽는다. 타인의 혀를 빌려보는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듯한 그들의 언어는 턱 끝까지 차오르는
슬픈 감정들을 물리쳐주고 덤덤하게 위로해주는 존재가 된다.

당신이 우울과 마주할 때, 이 시들이 부디 위로를 전해줬으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누구나 그렇다는 감정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았으면.

/



어느날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서서.
언젠가의 그 시간을 되돌아볼 때
내가 그에게 후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아픔이거나 슬픔이거나 갈증이거나,
그러한 아름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을 감으면, 황경신

사는 게 염증날 때
당신이 울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풀잎, 원구식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려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내려놓으면 된다
구태여 네 마음을 괴롭히지 말거라
부는 바람이 예뻐
그 눈부심에 웃던 네가 아니었니

받아들이면 된다
지는 해를 깨우려 노력하지 말거라
너는 달빛에 더 아름답다

/너에게, 서혜진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면 너에게
권태로워 잠을 많이 잔다면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면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네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밥, 천양희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 中, 헤르만 헤세

뜨거운여름 잠시나마 당신을 식혀줄 단편영화

위르트에서/9월이 지나면

위르트에서

(2016/ 감독: 허성완/ 주연: 윤금선아, 임새라)

물빛하늘, 넓은 들판한가운데 이질적이고 비밀스럽게 놓여있는 책상과 의자.
책상을 사이에 둔 채 마주앉은 윤서와 서운은 오늘, 이곳에서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다.

지난밤, 나는 절망했다. 내 언어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만, 내 사랑은 언어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지만, 정확히 지금 나와 동일한 언어를 가진 사람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롤랑 바르트, 애도 일기 중)

윤서와 서운은 의자를 타일로 부른다, 타일에 의해 뒤집어진 의자가 자의가 된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
윤서와 서운은 서로의 이름을 바꿔 부른다, 거꾸로 하면 서로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윤서와 서운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사랑인 거야. 내가 너한테 ‘사랑해’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잖아. 근데 진짜 알아듣는 건 너랑 나뿐인 거야.”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의 사랑을 전달할 때, 타인은 그들을 부정했다. 많은 언어들로부터 자신들이 부정당하고 비난당한다.
윤서는 더 이상 그 말들을 감당할 수 없어졌다. 말은 원래 크나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만 받아들이자는 서운의 말을 부정한다.
윤서는 자신이 준비해온 쪽지를 건넨다. 온통 우리의 관계를 부정하는 언어로 도배된 그 글에서 서운은 절망한다.
다시, 다시 우리의 언어로 정리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서운은 이 관계가 시작된 기억부터 되짚어가며 그들의 언어로 정리하려 한다.

그대를 만지고 싶은데 내 손은 숲속에 있어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중)

힐난 받는 자신의 사랑에 울음을 참는 그들의 눈에서 여전히 사랑은 존재한다. 사랑은 여전히 하고 관계는 정리된다.
서운을 원하지만 윤서는 서운을 부정한다. 눈물을 보이는 서운의 얼굴을 만지려 하지만 만질 수 없다.
청량한 여름 안에서 우울을 말하는 서운과 윤서로 이 영화는 이루어져 있다. 이 영화는 몇 개 없는 씬 안에서 많은 감정과 많은 글을 보여준다.
17여분의 러닝타임 내내 등장하는 많은 언어 중 그들의 언어가 아닌 것은 없었다.
황병승의 시가, 롤랑 바르트의 글이, 산울림의 노래가 그들의 언어가 되었다.

허투루 들리는 대사 하나 없는 이 영화를 당신이 봐주었으면 한다. 나와 함께 당신도 이들의 우울을 들어주길 바란다.
속삭여주세요 들릴 듯 말 듯 그 말을 더, 더
그냥 앉아있어요 지금 만난 것처럼 조금만 더, 더 (산울림 - 더, 더, 더 중)

9월이 지나면

(2013/ 감독: 고흥동/ 주연: 임지현, 조현철)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달린다는 것

나는 달리기를 싫어한다. 누군들 달리기를 좋아하겠는가.

입이 마르는 느낌도 싫고, 숨도 찬다는 변명으로 달리기를 싫어한 지 꽤 오랜 시간이지났다.

그래도 다들 나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싫어도 죽을힘을 다해 달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글 윤유미

고흥동 감독의 〈9월이 지나면〉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땀방길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연인과 애정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두 사람에 관한 영화다. 연인으로 넘어가기 전, '뽕'을 탈때 뜨는 간지러움, 9월을 지나쳐 조금 더 무르익었을 그들만의 계절을 기대하게 만드는.

한여름의 건축과는 시끄러웠다. 건축 공모전 설계도 제출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설계실에서 선영(윤화진)의 설계도가 사라진 일 때문이었다. 선영은 저보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지연(임지현)을 의심하지만, 승조(조현철)는 지연을 감싸준다. 승조는 빈 강의실에서 설계도를 만든다는 지연에게 자신의 집을 내준다.

〈러브레터〉의 니카야마 미호를 따라하는 지연을 보고 승조는 서서히 빠져든다.

훔친 것을 알면서도 직접 설계도를 제작해주는가 하면, 지연을 위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준다.

지연도 그런 승조에게 물들어간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승조와 지연의 서툰 행동들을 통해

그더운 여름과 선선한 가을 사이, 둘만의 풋풋한 계절을 느낄 수 있다. 승조가 부르는 그린데이의 〈9월이 지나면 개워주세요〉는 투박하고 서툰 만큼 솔직하게 다가온다.

지연은 그 후로 훔친 설계도를 다시 갖다 놓으려다 결국 발각될 위기에 처한다.

그때 승조는 러브레터의 니카야마 미호에게 고마워하라며 지연을 위해 훔친 설계도를 빼앗아 들고 죽을힘을 다해 달린다.

오직 지연을 위해서. 이런 추격신이 어디 있을까. 〈추격자〉, 〈끝까지 간다〉 등의 추격신을 통해 폐허가 된 가슴을 다시금 밀랑밀랑하게 만들어주는 추격신이 아닐 수 없다.

어찌 보면 승조의 행동은 지연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뛰어준다는 건 단순히 연민만으로는 되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둘은 연인과 애정 사이를 갈팡질팡한다. 결국, 지연은 승조를 그렇게 뛰어다니게 만들어놓고는 선영의 설계도를 공모전에 제출하지 않는다.

지연은 말없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승조에게 말한다. "9월이 지나면 개워주세요." 라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다. 서로에게 젖어든 둘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이야기에 젖어들게 만든다.

9월이 지나면 개워달라는 지연의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 후, 아직도 영화에 젖어 그린데이의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어 반복 재생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린데이의 노래와 아이와이썬지의 〈러브레터〉가 없었으면 이 영화가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저마다 뛰는 사연들은 다를 것이다. 지각을 면하기 위해,

소중한 친구와의 약속에 늦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또는 빨리 만나기 위해.

어느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달린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마음이어디 있을까.

I LOVE BEER!

맥덕이 추천하는 세계맥주 헌정서



글_조은진

■ 여름, 맥주의 계절이 돌아왔다. 어떤 장소에서든 맛있는 맥주 하나만 곁들인다면 꽤 근사한 분위기가 연출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맥주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연인과 데이트 중 추천해줄 맥주부터, 취하고 싶은 날 마실 수 있는 맥주, 친구들에게 나만 아는 맥주를 뽐내며 진정 즐길 줄 아는 이처럼 보일 수 있는 꿀 팁 까지 한꺼번에 담았다. 이 글을 통해 멋진 맥덕(=맥주덕후)이 되길 바란다. 우리 모두 아이러브 비어를 외치며 다같이 치얼스 - !

■ 맥덕이라면 맥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즐겨야 하는 법!
매일 술자리에서 섞어 마시던 맥주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맥주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맥주의 종류

1.라거(laeger)

늘 섞어 마시던 맛의 그 맥주!
높은 청량감과 톡 쏘듯 시원한 맛의 라거 맥주
(카스, 밀러, 칼스버그,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아사히 등)

2.필스너(pilsner)

라거맥주의 원조인 필스너.
황금빛을 띄고 있으며 상큼한 향을 가진 맛의 필스너 맥주
(필스너우르켈, 에페스, 클라우드, 산미구엘, 산토리, 벡스 등)

3.에일(Ale)

여기서부터 낯선 맥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진한 향과 맛으로 요즘 세계맥주의 획을 제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맥주이다.
맥주에 눈 뜬 당신! 에일 맥주 추천! 강추
(퀸즈에일, 에일스톤, 레페, 듀벨, 스킨 등)

4.바이젠(Weizen)

맥주는 보리로만 만든다는 편견을 버리자! 보리에 밀을 섞어 만든 밀맥주 바이젠!
부드러운 거품과 상큼한 과일향이 바이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딩거바이젠, 호가든, 슈무커, 5,0, 파울러너, 구트만 등)

5.스타우트(Stout)

태운 보리 맥아로 만든 흑맥주! 진하고 그윽한 향이 일품이다.
스타우트 맥주의 씹쓸하고 그윽한 맛을 느껴보고 싶지 않은가?
(기네스, 벡스다크, 스타우트, 레페, 영스더블초콜릿)

맥덕에디터가 추천하는 맥주BEST6!



1. 빅웨이브 골든에일 (Big Wave Golden Ale)

요즘 맥주집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빅웨이브 골든에일! 미국에서 만들어진 빅웨이브는 4.4%의 높지 않은 알코올 도수와 함께 깔끔하고 순한 목넘김을 자랑하는 맥주이다. 산뜻한 오렌지향에 청량감 넘치는 빅웨이브는 강약 조절이 조화로운 맥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간 햄버거와 조합이 꿀!

2. 듀벨 (DUVEL)

벨기에에서 태어나 알코올 도수 8.5%에 육박하는 스트롱 골든에일맥주인 듀벨! 오랜 기간 숙성되어 만들어진 이 맥주는 누군가 처음 맛보았을 때,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악마의 맥주라고 표현하여 악마(DUVEL)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매력적인 맥주라고 자부할 수 있다! 특유의 향긋함과 달콤함에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먼저 취할 수 있는 무서운 맥주이기도 하다.

3. 크로넌버그 1664 블랑 (KRONENBOURG 1664 BLANC)

오렌지향, 시럽류, 카라멜향 등이 첨가된 블랑은 한 모금에 꽃다발을 삼킨 듯한 향긋한 목넘김을 선사한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호가든과 비슷하게 선호도가 아주 좋은 맥주로,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분위기 내기도 쉽기 때문에 여름밤 야외에서 맥주 한잔 할 때 산뜻하게 고른다면 센스쟁이 되기는 식은 죽 먹기다. 씩씩하고 무거운 맥주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이들에게도 블랑은 좋은 맥주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4. 인디카IPA (INDICA IPA)

과일에서 단맛을 수치로 표현할 때 브릭스(Brix) 단위를 쓰듯 맥주에서 쓴맛을 수치로 표현하는 단위로 IBU(International Bitterness Units)를 사용한다. 일반 맥주들의 IBU가 10~40 정도인 것에 비해 IPA의 IBU는 적게는 60부터 높게는 100에 육박하기도 한다. 맥주에 홉을 많이 넣을수록 엄청난 쓴맛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PA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맥주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IPA에 빠지게 된다는 소문이 있다. IPA에 처음 도전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맥주 인디카는 그 뭔가 미묘한 향으로 중독성이 꽤 짙다.처음 한 모금을 들이킬 때는 씹사래하다가도 마지막엔 꽃향기가 온 입안에 퍼진다. 6.5%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인디카는 IPA 치고 순한 맥주이기 때문에 입문자에게 강력 추천 추천!

(참조: 단디뉴스)

5. 발라스트 포인트 스컬핀 IPA (BALLAST POINT SCULPIN IPA)

인디카로 IPA에 빠져 중독 되었다면 한 번 시도해볼 만한 맥주 스컬핀, 이 스컬핀도 매니아층이 꽤 탄탄하다. 맥주 좀 안다고 하는 맥덕들이 사랑하는 맥주에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 이 스컬핀은 라거로 분류되지만 홉과 맥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페일 라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컬핀이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홉의 씹쓸한 향을 감귤 향이 적절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트에서는 잘 만나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미친듯한 매력이 있는 스컬핀의 매력에 같이 빠져보고 싶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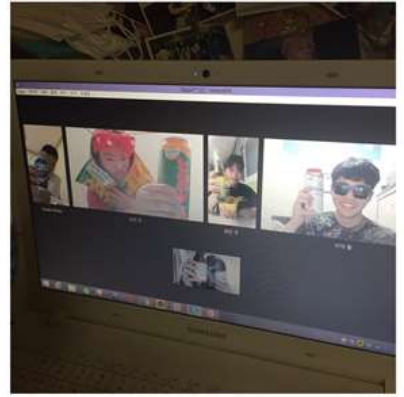
(참조: 단디뉴스)

6. 벡스 다크 (BECK'S D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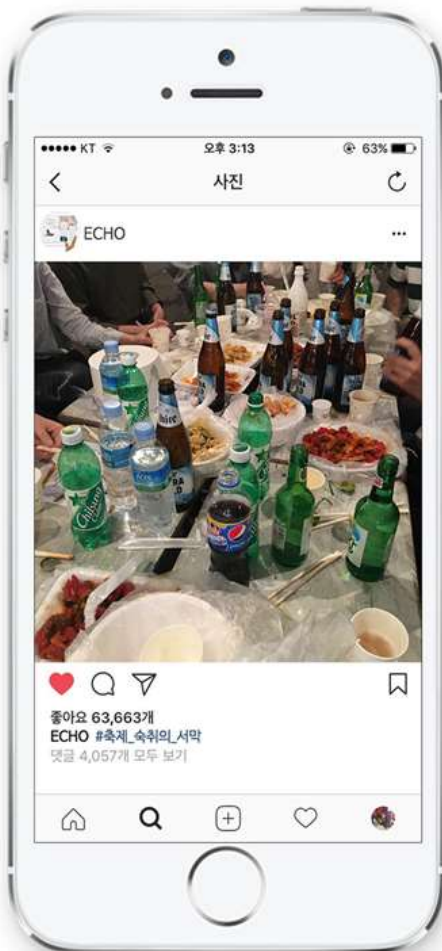
흑맥주가 빠지면 섭하지 않겠는가. 흑맥주의 대명사 기네스 못지않게 매력적인 벡스 다크를 소개한다. 수천 가지 종류를 자랑하는 독일 맥주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맥주이다. 120개국에 수출되며 초당 60병 이상이 판매된다고 하니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시중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벡스 다크는 마호가니 색상이 아주 매력적이다. 검은색이라기보다는 먹색(?) 이라고 하나 꽤 담백하게 생긴 모습이 믿음직스럽기까지 하다. 흑맥주를 떠올리면 그특유의 무거운 맛이랄던지 쓴맛이 생각나는데 이 벡스 다크에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살짝 단맛이 더 느껴진다. 한 블로거의 말을 빌려보자면 세련된 왕자 같다고나 할까. 아주 공감하는 문장이다. 아주 깔끔한 목넘김을 자랑하는 벡스 다크 쉽게 흑맥주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안성 맞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막걸리는_나를_죽였어

#한잔이두잔되고
#두잔이세잔되고
#내발은네발되고

#혼술은 외로워_다함께_치얼스



#술스타그램
#술이_술술
#Onthetable

술은 우리의 적이다 마셔서 없애 버리자
술은 우리의 적이다 마셔서 없애 버리자
술은 우리의 적이다 마셔서 없애 버리자



#설마_이것만_먹었을가요



#보드카와#매운떡볶이의조합



#양꼬치엔_칭따오



#숙취없는축복받은몸 #피스



#스웨_넘치게_숙취해소를_잠으로



#우웬#토나와#숙취엔_같이만든_idh



#숙취해소는#무념무상#방콕#공복유지

#술스타그램

#다음날

#Hangover

피할수없으면즐거라
피할수없으면즐거라
피할수없으면즐거라



#숙취해소는#다시술로#술로해장한다



#느끼한게최고야



#차가운거먹고#정신차리자#음주는_해로워



#숙취#토마토주스#성공적